

기후부 제2차관, 장마철 대비 전력망 건설 현장 점검

- 경남 함안군 군북-가야 전력구 공사 현장 방문...철저한 재해 대비 태세 강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3일 오전 이호현 제2차관이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군북-가야 전력구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장마철 대비 안전 관리 현황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실시한 동해안 송전탑 건설 현장 불시 점검에 이어 장마철 대비 재해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날 건설 현장을 찾은 이 차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 방지를 비롯해 빗물 유입 차단 대책, 작업자 미끄러짐 및 추락 방지 조치 등 장마철 주요 안전 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관리 실태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장마철이 다가온 만큼, 집중호우나 강풍 등 어떠한 기상악화에도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라며,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에게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 작업자의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붙임 전력망 공사현장 점검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박성열 (044-203-5123)
			주무관	김훈경 (044-203-5129)

- (일 시) '26.7.3.(금) 09:30~11:20
- (장 소) 경남 함안군 154kV 군북-가야 전력구 건설현장
- (참석자) 기후부 제2차관, 전력망정책과장 등, ^{건설현장}시공책임자, 한전 등
- (주요내용) 장마철 대비 재해 방지를 위한 전력망 건설 현장 점검
- 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군북-가야 전력구 건설 현장】			
09:30~10:10	40'	전력망 공사 현황 및 방재 대책 브리핑(현장사무실)	
10:10~10:25	15'	이 동 (현장사무실 → 관로 현장)	
10:25~10:45	20'	관로 공사현장 점검	
10:45~10:55	10'	이 동 (관로 현장 → 수직구 현장)	
10:55~11:20	30'	수직구 공사현장 점검	